

번역문

2018년 2월 7-11일 슈타인마이어 독일연방대통령 방한 계기 조선일보와의 서면인터뷰

1. 한국에 올 때마다 매우 기쁩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독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고도로 발전한 민주국가이자 산업국가입니다. 또한, 양국은 중견국가로서 비슷한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으며,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따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에 오면 독일에 대한 깊은 우정을 느낄 수 있고 독일이 많이 존중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연방대통령이 되고 맞이한 첫 손님 중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누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달라는 초청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벌써부터 독일 선수들의 경기가 기대됩니다. 개최국과 한국선수단에게 매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즐겁고 평화로운 올림픽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전 오래 전부터 한반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989/1990년 수십 년 간의 분단 상황을 평화롭게 극복한 국가로서 독일이 한국에 조언을 해주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비교는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독일 통일이 보여준 것은 무엇보다 미래는 열려있고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을 갈라놓던 장벽은 영원히 있을 것 같았지만 너무나 갑작스레 예상치 못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30여 년 전 독일의 상황과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동독은 결코 이웃국가들에게 오늘날 북한만큼의 위협이 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유럽 분열 당시 외교, 안보정책적 환경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동서독은 오늘날 남북한만큼 정치적, 사회적으로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이야말로 남북대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대화를 더 이어나가고 확대하고 심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환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웃국가들이 대북제제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북한이 이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미사일과 핵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상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미사일실험 종결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의 긴장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상호이해관계가 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한반도의 극심한 정치적, 군사적 긴장 상황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물론 없습니다. 독일 분단 역시 양대 강국 간의 오랜 대립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과 같은 정권이 기본적인 국제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결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관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곧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없이는 북한문제의 진정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국가들이 공동의 관심사인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결속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4. 맞습니다. 9 월 24 일 총선 이후 정부 구성이 지난 70 년에 비해 지체되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은 새로운 연정을 위해 다양한 조합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대통령으로서 제가 할 일은 이러한 과정을 잘 관찰하며 헌법 규정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의심스러우면 행동에 나서는 일입니다. 기본법을 제정한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특히 연방대통령을 포함한 기관 간의 효과적인 상호 작용을 위한 법규정과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5. 독일 연방대통령으로서 힘든 역사, 폭력이나 전쟁으로 각인된 역사로 얹혀있는 국가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독일은 역사의 심연 이후, 즉, 지난 세기 독일이 이웃국가들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끔직한 고통을 가한 이후 화해라는 행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공격을 받았던 국가들과도 오늘날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화해의 기적을 결정적으로 가능케 한 것은 양측의 화해용의와 진정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65년 (폴란드에게는 특히 더 잔혹했던 2 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겨우 20 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폴란드 주교들이 독일 주교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밉니다. (중략) 용서를 하고 용서를 빕니다." 이 편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용기와 관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독일은 이러한 관용에 상응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유럽은 여러 차례 이어진 위기와 얼마 전부터 새롭게 떠오르는 반유럽적인 정치세력들로 현재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우(alarmism)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논란은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로 야기된 엄청난 변화와 변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고립과 국가주의로의 회귀를 희망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바를 마치 해결책인 양 제시하는 정치세력들이 현재 성공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우리 시대의 도전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독일에게 있어서는 유럽통합만이 역사적, 지리적으로 유일한 정답입니다. 저는 앞으로 구성될 독일 연방정부 역시 이에 입각하여 행동할 것이라 확신합니다.